

협회소식

양돈자조금 대의원 200명중 193명 (97%) 선출

- 이르면 12월초경 대의원회 개최 예정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치러진 12월 김건태 공동준비위원장(본회 회장)이 경기 이천 지역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출구를 방문해 선거관리위원들을 격려하고 양돈농가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양돈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선거가 전체 200명중 193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성공리에 치러졌다. 1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112개 시군 선출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107개 선출구에서 200명의 대의원중 97%인 193명의 대의원이 선출된 것이다.

양돈자조활동자금설치 공동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건태·송건섭)에서 집계한 결과,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서는 총 15,664농가중 6,038명의 선거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38.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돼지 사육두수로

는 10,301,381두중 71.6%인 7,371,226두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효투표수(돼지 사육두수의 2/3 이상)를 충족시켰다.

첫날 투표는 오전 11:30 충남 아산선출구에서 유효투표수를 충족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어 12시경 경북 경주선출구에서도 유효투표수를 충족하였다.

특히, 아산지부에서는 당일 오전 11시에 투표 장소에서 지부 월례회의를 개최하였고, 경주지부에서도 오전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선거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투표율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또한, 전남 여수선출구에서는 정착촌 입구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전국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효투표수를 충족한 선출구는 전북 김제선출구로 13일 오후 7시 30분에 집계 완료되었다. 한편 12일에는 전국 112개의 선출구중 96개 선출구가 유효투표수를 충족하고 선거를 종료하였으며, 200명중 161명(80%)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이후 유효투표수를 충족하지 못한 16개 선출구에서는 익일(11.13)까지 선거일이 연장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112개의 선출구중 107개 선출구가 유효투표수를 충족하고 200명의

대의원중 97%인 193명이 선출되었다.

도별로는 경기도가 41명중 40명, 강원도가 9명중 8명, 충북이 9명중 9명, 충남이 39명중 39명, 전북이 23명중 21명, 전남이 24명중 23명, 경북이 23명중 22명, 경남이 26명중 25명, 제주도가 6명중 6명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유효투표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대의원 선출을 하지 못한 선출구는 경기 시흥·서울·안산·의왕·과천·군포선출구 1명, 강원 강릉·삼척·태백·동해선출구 1명, 전남 곡성·구례선출구 1명, 경북 울진·영양·청송·울릉선출구 1명과 부산 1명 등이다.

한편 전북 남원은 대의원 4명중 2명이 사퇴하여 2명만이 선출되었다.

참고로 본회 회원의 경우 175명이 대의원 후보자에 등록하여 169명이 선출되어 97%의 당선율을 보였으며, 양돈협회 임원, 지부장들은 71명이 대의원 후보자에 등록하여 68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양돈자조활동자금설치 공동준비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대의원회를 개최, 양돈자조금 거출여부와 거출금액, 사용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동준비위원장, 기자회견 갖고 대의원 선거 참여 호소

지난 11월 6일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공동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건태, 송건섭)는 양재동 소재 aT센타 실무추진단 사무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막바지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김건태 공동위원장(양돈협회 회장)은 "최근 WTO/ DDA 및 FTA 협상 진척에 따라 돼지고기를 비롯한 축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볼 때 양돈자조금은 국내 양돈산업을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끄는 장치이자, 양돈산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축산업계를 리드하는 양돈 분야에서 자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설치되기 위해 양돈업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대의원에 선출되도록 양돈인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과 함께 유효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부경양돈조합, TV 홍보비 1천만원 기탁

부경양돈조합(조합장 한영섭)이 지난 11월 13일 본회에 돼지고기 소비촉진 TV 홍보비 등 협찬금 1천만원을 기탁해 왔다.

부경양돈조합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타에서 개최한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에서 자사의 브랜드인 "포크밸리"가 양돈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농림부 장관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수여 받았다고 밝히고, 경진대회 대상으로 받은 상금을 가장 보람있게 쓰기 위해 조합원들과 협의를 가진 결과 상금 전액을 양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 기금 및 가축방역기금으로 각각 1천만원씩 지원키로 결정하

고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1천만원을 TV 홍보비로, 또한 1천만원은 방역성금으로 기탁했다.

이진석 이사 100만원, 상돈사료 200만원 등 TV 홍보비 기탁

돼지가격 하락기를 맞이하여 돼지가격 안정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본회가 추진중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협찬금 모금에 전국 지부의 참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구미지부(지부장 강명수) 45만원, 31일 인천지부(지부장 정진섭) 81만원, 의령지부(지부장 손백현) 50만원, 11월 4일 이진석 이사 100만원, 윤대열 이사 50만원, 6일 천일인쇄사 김사홍 대표 50만원, 11일 상돈사료 유재환 대표(본회 감사) 200만원, 13일 부경양돈조합(조합장 한영섭) 1,000만원, 17일 경산지부(지부장 정병규) 147만원, 김천지부(지부장 장도환)가 51만을 납부하는 등 11월 17일 현재까지 모금된 TV홍보비 등 협찬금은 5천855만원이다.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 전개

- 대비육종 150만원, 의령·당진지부 각 50만원
- 퓨리나코리아 전국 지구·특약점 모금 활동

활발

본회와 축산신문이 주관하고,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운동’ 캠페인에 본회 임원·지부장뿐만 아니라 축산업계 등 각계의 관심과 성원이 모자고 있다.

지난 9월 25일 본회 김건태 회장 30만원, 최영렬 부회장 10만원, (주)애그리브랜드 퓨

리나코리아 사랑의 모임회원 일동 50만원, 동회사 중앙실험실 이남진 이사 5만원, 10월 2일 본회 김태욱 자문변호사 20만원, 6일 아시아 동산 20만원, 박광욱 본회 이사 10만원, 7일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2지구 김진형 이사의 양돈판매팀 일동 80만원, 동회사 청주 특약점 김선각 사장, 화성특약점 조문호 사장 각 20만원구좌, 제천특약점 전대재 사장, 음성특약점 지용욱 사장, 송탄특약점 김정국 사장, 여주특약점 최충묵 사장, 성환특약점 이진기 사장, 이천 특약점 박승구 사장, 충주특약점 손만옥 사장 각 10만원, 근육산업고명근 사장 4만원, 디에치엠(주) 탁봉열씨 2만원, 9일 맹창호 본회 홍성지부 회원 30만원, 13일 본회 1검정소·2검정소 직원 일동 각 20만원, 14일 (주)애니인포넷 함영화, 곽병오 공동대표 10만원, 15일 (주)선진한마을 남대현 대표 100만원, (주)유로하우징 신일식대표 20만원, 24일 도드람B&F 김대성 대표가 현물 45만원, 한국계육협회 한형석 회장 20만원, 다비육종 민동수 상무외 직원일동 150만원, 31일 의령지부(지부장 손백현) 50만원, 11월 5일 당진지부(지부장 신인철) 50만원, 7일 (주)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사장 : 정학상)사랑의 모임(회장 : 이정열) 회원일동이 50만원, 동사 중앙실험실 구재연 부장 3만원, 포천축협 직원일동이 198만원을 보내와 11월 17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11,070,000원이다.

본회, 돼지콜레라 백신공급 현황 개선 요구

현재 관급 돼지콜레라 백신 공급의 경우 시군의 ‘읍면사무소’ 또는 해당지역 ‘이장’ 등

이 일선 양돈장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이 경우 시군의 '읍면사무소' 또는 해당지역 '이장' 등은 돼지콜레라 백신의 냉장보관 등 취급 요령이 다소 부족하고, 동 백신의 일선 양돈장에서의 정확한 전달이 안 되는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동 백신의 접종이 잘 안 이루어지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회는 지난 11월 10일 농림부에 돼지콜레라 백신의 취급 요령 및 돼지콜레라 질병에 대한 이해와 동 백신 전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돼지콜레라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 공급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혈청검사수수료 등 면제대상에 '종돈장' 포함 요청

본회는 지난 11월 10일 농림부가 추진중인 「혈청검사및검역수수료규칙중개정령안」중 기존의 수수료 면제대상 이외에 종돈장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그 이유로 현재 종돈장에서는 일선 양돈장을 대상으로 종돈 분양시 구제역, 돼지콜레라 및 돼지오제스키병 등 악성질병에 대한 혈청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악성질병 전파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종돈장에 혈청검사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경우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하고, 분양가 상승은 곧 일선 양돈장에 경영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돈장의 혈청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질병 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등 양돈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돈농가 10명중 절반 이상, 배합사료 300원/kg 이상 지출

국내 양돈농가 10명중 5명 이상이 kg당 배합사료 비용을 300원 이상씩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귀 농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합사료 kg당 평균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총 646명이 응답한 결과 △320원/kg 이상 33.7% △300원~319원 22.1% △280원~299원/kg 21.2% △260원~279원/kg 13.2% △240원~259원/kg 4.5% △240원/kg 이하 2.2%로 나타났다. 이 결과 국내의 양돈농가 55.8%가 kg당 배합사료 평균가격 300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양돈농가의 절반 이상이 비육돈을 출하하는데 사료비만으로 10만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장경영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는 양돈농가들이 가장 세심하게 점검해 필요 이상의 배합사료가 허실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사료효율을 높이는 등 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73만원

지난 10월 20일(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30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73만8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3두를 비롯 총 123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82만4,625원(80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2만원(36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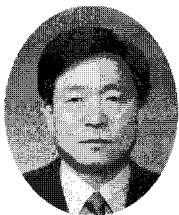
한편, 이날 문경 FINE 듀록 수컷 슈퍼돈(선발지수 272점)이 경기 여주군 점동면 외곡리 321-2번지 이종영(이천 AI 센타)씨에게 최고가인 310만원에 낙찰됐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85만원

지난 11월 10일(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59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85만8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3두를 비롯 총 119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98만5,529원(85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1만1,417원(34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대관령 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2점)이 충남 홍성군 홍북면 갈산리 219-12번지 한흥재(백월 AI센터)씨에게 최고가인 7백70만원에 낙찰됐다.

이종길 홍보부장, 한국잡지언론상 수상



이종길 홍보부장 상을 수상했다.

본회 이종길 홍보부장이 제38회 잡지의 날을 맞이하여 건전한 잡지언론 창달과 한국잡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37회 한국잡지언론상 특별부문

이종길 부장은 지난 82년 본회에 입사하여 양돈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양돈 및 주간양돈정보를 위해 20여년간 헌신해 왔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제주도협, 제주돼지 3천두 연내 육지 출하

본회 제주도협의회(협의회장 김성찬)는 제주도 돼지값 안정과 농가들의 출하물량 조절을 위해 연내 제주도 돼지 3천두를 타 지역으로 출하시킬 계획이다. 제주도협은 최근 제주도내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출하두수가 크게 증가 양돈장에서 출하대기 물량에 체화가 늘어나 이같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때 출하되지 못한 돼지들이 출하체중 증가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돈사 수용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제주도협은 이처럼 양돈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자 스스로가 대책을 강구해 연말까지 3천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반출은 도매시장이 아닌 전남 1곳, 충청 1곳 등 일반 육가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협은 농가별로 반출물량을 신청 받아 지난 11월 12일 처음으로 돼지 60여두를 반출했으며, 앞으로 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와 제주양돈조합은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에서 1만원, 제주양돈조합이 1만원 등 두당 2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산지부,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 실태 조사완료

아산지부(지부장 서석천)는 본회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를 완료했다. 아산지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아산시의 500두 이상 전업 92농가에 대해 아산시청 농정과 축산계직원 2명과, 아산지부 임원 8명이 참여하여 조사를 완료했다.

아산지부는 아산시청 농정과 및 아산지부에서 경영실태 조사를 위해 농가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3회 전송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조사전일 양돈협회 임원 10명 긴급회의를 갖고, 읍, 면, 동단위로 구분해 책임자를 선정, 10명의 임원이 10명의 조사대상 책임을 갖고 진행할 것을 협의했다.

그리고 조사당일 임원들은 협회에 방문하여 농가들이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전화를 독려하고, 아산시 농정과 축산계 직원들도 조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농가에 독려전화를 했다. 한편 기록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산지부 임원들이 지도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화순지부, 2003년 선진지 견학

화순지부(지부장 정성국)는 지난 11월 17일 정성국 지부장 및 부지부장, 총무 등 지부 회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 제2종돈능력검정소를 방문해 돼지를 검정하는 과정과 경매 방법 등에 대해 듣고, 본회가 추진하는 검정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삼천

포를 경우해 3곳의 섬과 다리 등을 둘러보며 농장 일로 피곤한 심신을 추스리며,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의령지부, TV 홍보비 50만원 기탁

손백현 의령지부장과 회원 등 20여명이 지난 10월 31일 본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본회가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TV 홍보비 50만원과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손백현 지부장과 지부 임원 및 회원 16명은 지난 31일 aT센터에서 개막한 '2003 축산물 브랜드전'을 관람한 후 본회 사무실을 방문해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양돈농가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홍성지부, 동절기대비 돈사관리요령 등 세미나 개최

홍성지부(지부장 정일희)는 지난 11월 17일 홍성소재 홍주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일희 지부장 등 지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결과 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지역 선출구는 총 양돈농가수 641명중 21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인원 대비 32.7%의 투표율과, 총 사육두수 457,271두중 339,494두로 사육두수대비 74.2%의 투표율로 9명의 대의원 후보를 확정지은 것과, 겨울철 동절기 대비 돈사관리요령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농가들이 동절기에 돈사관리시 어려운 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원주지부, 돼지고기 소비활동 계획

원주지부(지부장 김주천)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7시 지부 사무실에서 회원농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 참석한 원주지부 회원농가 들은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의견을 개진하고, 돼지 가격 하락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촉진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활동을 계획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지부, “무료시식회” 개최

평택지부(지부장 김용진)는 지난 10월 26일 송탄 경문대 입구 이충동 레포츠공원 내의 농업축제행사장 내에서 지부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여한 가운데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했다. 평택지부는 어려운 때일수록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하고,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축제 기간에 돼지고기 무료시식회와 요리 경연대회 등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천지부, 돼지사랑 요리경연대회 및 무료시식회 성료

연천지부(지부장 윤상협)은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천군 돼지사랑 요리경연대회 및 무료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회에서 선정된 읍·면 대표와 회원농가 주부 14명이 참여하여 수출부위를 재료로 한 요리경연을 벌인 결과, 최우수상에는 포크커틀릿을 출품

한 양육자 주부가, 우수상에는 돼지고기 보쌈을 출품한 최춘욱 주부가, 장려상에는 돼지고기 에그튀김의 박희원 주부, 돼지고기 편육의 조명희 주부가 선정되었고,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상(돼지고기 상품권)이 시상되었다.

이번 행사에 출품된 요리와 지부에서 준비한 솔뚜껍 불고기 및 돈까스를 시식한 소비자 들은 수출부위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전문가가 아닌 주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개발되고 실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연천지부에서는 이번 행사의 성공을 계기로 연천군 돼지사랑 요리경연대회를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고양지부, 돼지고기 홍보시식회 개최



고양지부(지부장 김운영)은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산의 중심가인 호수공원 미관광장에서 돼지고기 홍보시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운영 지부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 등 양돈인들과 퓨리나사료 1지구 김학준 영업이사를 비롯한 영업팀 및 퓨리나사료 여성 양돈대학생들이 참여해 고양시민들에게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등심·안심·후지 등 수출부위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양농**